

국제유가 폭등 소비자 물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선에 이르면서 내년 이후 소비자들이 상승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원유가격 급등이 한국 경제에 가져다주는 충격파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물가에 관한 한 그 충격은 직접적이다.

달러화 약세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물가압박을 어느 정도 상쇄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의 유가급등세를 감안할 때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년만에 3%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2.4%, 내년은 3%대=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간으로 2.4%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에 이를 정도의 폭등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은 당초 전망한 2.4%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유가급등세가 10월 이후에 두드러졌기 때문에 연간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크게 흔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 물가가 당연히 걱정스럽다. 최근의 유가급등세는 고스란히 내년 소비자물가에 전가될 것으로 보

내년 상승률 3%대 '충격파' 크다

배럴당 10%대 오르면 소비자 물가 0.2% ↑

4년만에 악화... 비철금속·곡물가 급등도 심각

여 물가상승률이 3%선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5년 2.8%, 2006년 2.2%에 이어 올해 한은의 예상대로 2.4%를 나타내면 3년째 2%대를 이어가는 셈이다.

그러나 소비자물가는 내년에는 2004년(3.6%) 이후 4년만에 3%대로 악화할 전망이다.

◇배럴당 90달러선 유지되면 소비자 물가 0.45%포인트 상승 효과=한은은 유가가 배럴당 10% 상승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2%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가상승은 석유제품 가격만이 아니라 유통을 생산동력으로 활용하는 각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용 상승을 초래한다.

곡물·비철금속 등의 가격도 원유 못지않게 급등하고 있지만 이들 품목의 원유와 달리 국내에서 부분적으로 대체재가 존재한다.

이에 반해 원유는 국내에 전혀 대체재가 없고 필터링 효과가 미약해 전체

물가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한다는게 한은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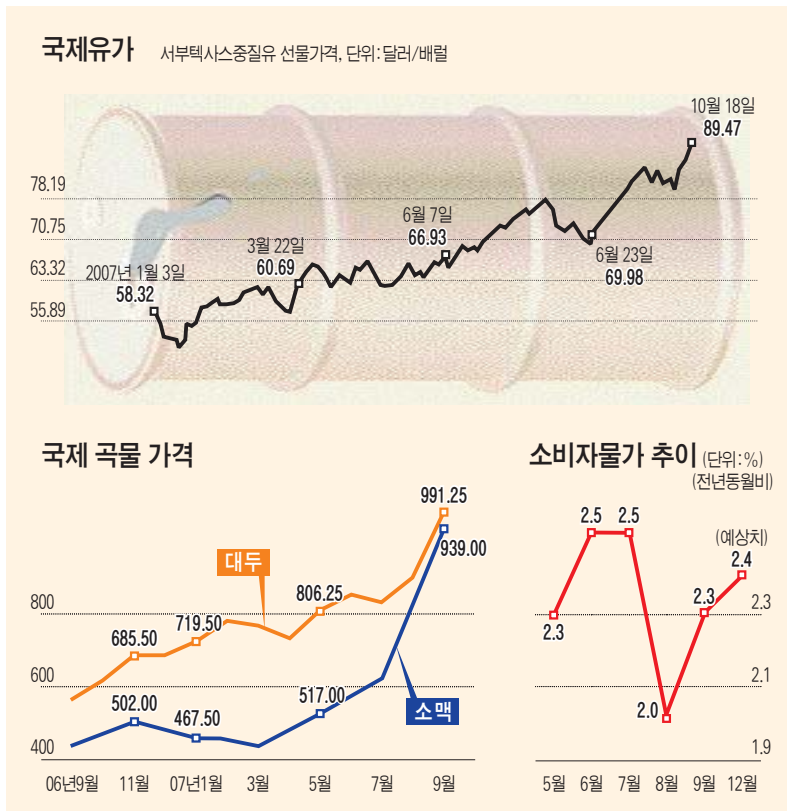
배럴당 100달러 시대의 도래를 예상하고 있으며 만약 이런 예상이 현실화한다면 국내 물가에 주는 충격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곡물·비철금속 가격급등=원유 이외에 구리와 니켈·아연 등 비철금속과 밀·옥수수 등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달들어 비철금속 가격 급등세는 한 풀 꺾이는 양상이라는 하지만 구리의 t당 가격은 8천달러를 웃돌면서 여전히 사상 최고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니켈도 작년말의 t당 3만4천달러에는 못미치지 않지만 여전히 t당 3만달러 초반대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곡물 가운데 밀 가격은 2년전에 비해 3배 가까이 가격이 폭등했으며 옥수수·콩 등도 2년전에 비해 50% 이상 가격이 치솟았다.

◇환율 등 국내 주변여건이 변수=이러한 물가압박을 덜어주는 유일한 요소는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하락에



수출부문과 통화량 관리 등에서 큰 부담이기는 하지만 물가상승세를 상쇄하는 데는 특별히 한몫한다.

과연 내년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경기부진으로 글로벌 달러화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하락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충격흡수 요소들도 원유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로 치솟는 비상상황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일제히 물가를 압박하는 쪽으로 돌변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라면 나트륨 함유량 높다

1봉지에 하루 권장섭취량의 95% 달해

시중 유통되는 라면 71%가 하루 나트륨 권장섭취량의 90% 이상을 함유하고 있으며 라면 1개에 들어 있는 평균 나트륨 함유량은 하루 영양소 기준치의 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이 시중 유통 라면의 나트륨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의 71%에서 1일 영양소 기준치 2천200mg의 90%인 1천800mg 이상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으며 평균함량은 1천908mg으로 9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조사결과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 주요 식품은 소금 형태에서 20.1%를 섭취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된장류가 19.7%, 김치류 19.6%였으며 가공식품 가운데는 라면이 4.7%로 가장 높았다.

또 시중 유통중인 라면 66종 가운데 나트륨 함유량이 1일 영양소 기준치의 90%인 1천800mg 이상을 함유한 제품은 71%인 47개로 분석됐다. 라면의 평균 나트륨 함유량은 1천908mg으로 하루 섭취권장량의 95%를 상회했다.

나트륨(소금)은 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혈압·뇌졸중·위암 등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평균 5천280mg으로 미국(3천338mg)의 1.6배, 일본(4천560mg)의 1.2배이며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2천200mg의 2.6배 수준이다.

대형마트·백화점 판매 농산물

농약 과다 검출... 143건 폐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되거나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사용돼 수거·폐기 처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농산물 수거·검사결과에 따르면 할인점과 백화점 농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돼 수거·폐기 처분을 받은 건수는 143건으로 집계됐다.

수거검사 결과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한 농산물이 53건, 5배 이상 초과한 경우가 19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0.3%)에서 기준치의 5배를 넘는 농약이 검출됐으며,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발견돼 적발된 사례도 14건이나 됐다.

특히 한 농협유통센터에서는 기준치의 594배에 이르는 살충제가 검출됐으며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할인점에서도 기준치의 65~93배에 이르는 살균제가 검출되기도 했다.

전재희 의원은 "생산자만 처벌하고 있는 현 식품위생법 규정은 사후 약방문격이 되고 있는 셈"이라며 "많은 소비자들이 찾는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품질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 등 금융사 주민등록번호 조회

6개월간 372만건...사생활 침해

올 들어 6개월간 카드·캐피탈사 및 신용정보회사들이 채권 추심 명목으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 자료를 조회한 건수가 37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1건이라고 가정할 경우 국민 100명당 8명이 주민등록 자료를 조회당한 것이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너무 쉽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김양수·이계경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신용카드·캐피탈사 및 신용정보회사 등 금융회사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조회한 건수는 372만4천56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각 금융사의 채권을 넘겨받아 전문적으로 추심을 하는 신용정보회사의 조회건수는 325만3천712건으로 87%의 비중을 차지했다.

현행법은 금융사들이 채권추심 등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려 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정보사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조회건수는 2005년 5천339만건, 2006년 5천629만건으로 올 상반기 들어 급증했다. 다만 올 상반기부터는 종전에 주민등록조회 승인을 받은 건과 동일한 내용을 조회한 경우 통계에서 제외되는 등 기준이 크게 변경돼 연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어렵다.

직장인 58% "사내서 세대차로 스트레스"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세대 차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젊은 세대가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은 리서치 전문기관인 폴에버와 함께 직장인 1천314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회사에서 세대 차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라고 설문한 결과 58.4%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20대가 63.9%로 가장 높았고 30대(60.5%), 50대 이상(55.8%), 40대(50.7%) 등의 순으로, 젊은 층에서 더 많이 세대차이로 인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직장인들은 세대 차이를 가장 많이 느끼는 때 대부분 '평소 대화할 때'(34.9%)와 '자신이나 보고를 하거나 받을 때'(33.9%)를 꼽았다. 일부는 '회식 때'(10.3%), '회의를 할 때'(8.2%), '점심 후 휴식시간 때'(7.2%)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답했다. 직장인들이 세대 차이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이하 복수 응답) 주로 '개인생활에 대한 가치관에서'(50.4%)라고 밝혔다.

유가 배럴당 100弗시대 '눈앞' '세금인하' 목소리 커진다

'기름값 폭탄'이 전 세계 경제와 금융 시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가운데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나치게 높은 유류세 인하 등 충격 완화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국제 석유시장에서 국제 유가향방의 척도인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선물 가격(11월 인도분)이 88.60달러로 전날보다 0.87달러 하락했다. 하지만 이는 장 후반의 조정이었을 뿐, 장중에는 90.07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처음으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선을 넘을 수 있음을 세계에 각인시켰다.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1.39달러 뛰어 사상 최고가인 79.59달러를 기록, 배럴당 80달러 고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무렵만 해

도 두바이유가 배럴당 32달러를 넘으면 가격대에 따라 유류제품에 붙은 세금이 깎아 충격을 흡수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후에는 공급 차질없이 가격만 오를 경우 시장에 반영하겠다는 쪽으로 방침을 선회,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원유 등의 수입관세나 각종 부과금을 빼고도 자그마치 23조5천억원이나 되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등 지난 5년간 103조8천억원의 유류세를 거둬들였다. "유류세 인하여력이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 등 정치권은 유류세 인하에 적극적이다. 선거를 앞둔 탓이기도 하지만 각종 여론을 고려했을 때 어떤 형태로든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2008년형 스포티지 기아차 레이싱걸 도우미들이 20일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앞 광장에서 2008년형 스포티지를 홍보하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 12~21일 수도권을 비롯 광주 등 전국 6대 광역시의 인구밀집지역에서 스포티지를 홍보하는 '전국 게릴라 전시회'를 가졌다. (기아차 광주공정 제공)

청년층 실질 고용 사정 악화

광주 3분기 실업률 8.7%

3·4분기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 청년층의 실업률이 소폭 하락했지만 실질적 고용사정을 보여주는 고용률은 되레 악화되는 등 청년층의 고용환경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7%로, 지난해 같은 달(7.3%)에 비해 0.3% 떨어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용률은 41.6%로, 지난해 동월(42.6%)보다 1% 낮아져 실업률의 하락폭을 웃돌았다. 표면상 청년층의 실업률은 소폭 개선됐지만 실질적 고용현황은 오히려 나빠진 것이다.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를 합한 전체 인구 가운데 취업자의 비율로, 실질적 고용사정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반면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용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취업준비 등 실제로 구직활동을 벌이고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의 경우 3·4분기 청년층 실업률이 8.7%로, 2·4분기(11.2%)보다 2.5% 낮아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0.0%로, 2·4분기(40.3%)에 비해 다소 악화되는 등 고용사정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01 05 06 24 27 42	32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598,618,550	6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122,970,658	13
3 5개 숫자 일치	1,516,716	1,054
4 4개 숫자 일치	57,689	55,422
5 3개 숫자 일치	5,000	945,297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10억	2조 155882
2	5억	2조 155881
		2조 155883
3	1천만	1등과 조기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72702
5	1만	각조 455
		각조 10
6	2천	각조 03
		각조 6
7	1천	각조 4

수출·내수 회복... 내년 5.1% 성장

한경研 전망... 글로벌 성장률 하락 불구 올해보다 양호

내년 경제 성장률은 수출증가 및 내수 회복으로 올해보다 높은 5.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2008년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내년 성장률(실질GDP 기준)을 올해 성장률 추정치인 4.7%보다 높은 5.1%로 전망했다. 수출은 미국 등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 원화절상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 다변화, 제품 경쟁력 제고에 힘입어 크게 둔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부문은 신정부 출범, 북핵 리스크 감소 등에 따른 대내외건 개선에 힘입어 꾸준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 물가는 국제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 강세, 내수 회복세 지속 등의 영

향으로 올해의 2.3%보다 높은 2.6%로 상승하고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에 의해 1998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33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참여정부 기간에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이 극히 부진했다며 새 정부 초기의 정책초점은 일자리 50만개 창출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준폐위기 '대북사업' 성공적 추진

현대 현정은 회장 취임 4돌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남북 정상회담의 후광으로 대북 사업에 탄력을 받은 가운데 21일 취임 4주년을 맞았다.

현 회장은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이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 사업이 준폐 위기에 처하는 등 위기에 몰렸지만 특식으로 밀어붙여 금강산 관광은 누적관광객이 160만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연간 최대



인원인 32만 명의 관광객이 예상되고 있다.

2005년 3차례 시범관광을 실시했던 개성관광은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이미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현재 26개 기업이 가동중이며 2천여개의 기업들이 입주희망하고 있는 2단계

자산 50%·매출 40% 늘려 경영 안정·외형 성장 성과

사업에 앞두고 있다.

현 회장은 2005년 7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면담한데 이어 올해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방문해 개성공단과 백두산 관광 조기 추진 등 굵직한 성과를 이뤄냈다.

현 회장 취임 이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영안정과 외형성장이다. 총 자산 규모는 2003년 8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12조7천억원으로 50% 이상 늘었으며, 매출은 7조6천억원으로 2003년에 비해 41% 증가했다.

/연합뉴스